

수영 대중화 이끌고 광주 국제스포츠포도시 발돋움

93세 노인도 당당한 레이스
자폐아·장애인·입양아 출전
2주일간 연일 감동의 드라마

남도관광·문화예술 공연
광주의 맛·멋·흥 흠뻑
각국 선수단에 추억 선사

건강한 운동, 수영 인식 전환
수영동호회 활성화 견인
열악한 인프라 확충 계획



2019 광주 세계수영마스터즈 대회 폐막식이 1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GFN 어린이합창단과 시민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노래 속에 대회 참가국들의 국기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열정과 도전, 연대와 화합, 감동과 환희의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가 막을 내렸다. 18일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한 달 간 빛과 열정을 불태웠던 '2019 광주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각 국 국가대표들이 출전한 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와 달리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이 출전하는 마스터즈대회(8월5일~8월18일)는 인간 승리의 감동 드라마를 써내려와 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한달 간의 수영대회를 치르면서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광주에서 대한민국 수영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광주가 국제스포츠포도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인간승리' 감동의 드라마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는 그야말로 한 편의 감동의 드라마였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이들이 '수영'을 매개로 광주에 모여 도전하고, 극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았다.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90대의 어르신들의 노력과, 한국 수영 여제의 37년 만의 복귀, 입양아의 46년만의 고국 방문,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참

가자 등의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고,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자폐 장애 1급인 이동현 씨의 사연은 모든 이들을 뒤흔들었다. 아씨는 100여명의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한 장애인으로 참가해 경영 자유형 100m, 접영 50m, 접영 100m에 출전했다. 아씨는 "기력과 순위를 다투겠다는 것이 아니다. 함께 시합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당차게 도전했고, 멋진 경기를 펼쳐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독일에서 참가한 청각장애인 골드베르크 필과 로빈 형제의 도전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출발신호를 들을 수 없어 광학 출발신호에 의존해야 했지만,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보청기 없이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지만 5~6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 한때 장애인 수영 독일 대표도 지냈다.

이번 대회에선 70년대 중후반 한국 신기록을 무려 32차례나 경신하며 한국 여자수영의 간판으로 활약했던 최연숙(60) 씨가 37년 만에 깜짝 복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어 더 큰 것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기 은퇴를 선택한 최씨는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토록 그리던 물로 되돌아와 감동을 안겼다.

6살 때 독일로 입양됐다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무려 46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을 방문한 라인들 심 미리암(52) 씨의 사연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태어난 나라에서의 역사는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특히 제 기록을 20초나 단축해 경기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지만, 입양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감동은 고희영의 참가자였다.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었다. 여자 자유형에 참가한 아야노 토시(93-일본) 씨는 대회 최고령자였다. 비록 빠르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과 격차는 크게 벌어졌지만,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쳐 터치패드를 찍었다. 남자 최고령이자 최다종목 출전자였던 불가리아에서 온 테네프 탄초(91)씨는 노익장의 정점이었다.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다이빙에 나서서 등 무려 11개 종목을 신청해 도전을 이어갔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가슴 뜨거운 사연과 도전, 그리고 무대 아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 운영 요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 남도 관광·체험,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
이번 마스터즈대회는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광주를 찾는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은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즐기며 광주의 맛과 멋, 흥에 흠뻑 빠졌다. 곳곳에서 열린 다채로운 공연·예술 무대는 광

주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번모시켰다.

선수촌 웰컴센터에 마련된 관광상품 예약코너에는 연일 가족, 단체 단위로 관광상품을 예약하려는 참가선수와 관광객들로 붐볐다. 외국인 관광객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광주의 풍경과 문화예술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와 타쇼(TASHOW) 관광버스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타쇼 관광버스는 무등산과 전통사찰을 둘러보고 한옥, 다도, 한복, 전통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광주의 자연과 문화, 맛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일 1회 운영에 20여명을 모집했는데 매번 정원을 초과해 몰리며 인기가 높았다.

협력여행사들의 관광상품인 남해관광 3박 4일 패키지과 할리데이플레너스 9박 10일 단체패키지도 하루 2~3팀이 참여하며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겼다.

광주 시민의 관광 안내도 돌보인 대회였다. 나라별로 지원에 나선 시민서포터즈는 담당 나라를 물리고 대회에 통해 알게 된 선수단에 광주의 따뜻한 점을 나눠줬다. 지난 6일 유럽 최북단에서 광주를 찾은 핀란드 선수들이 "광주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시민서포터즈는 앞장서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운임동의 야경을 안내하며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8일에는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선수단에 국립광주과학관을 소개하는 등 시민과 선수단은 함께 광주를 즐겼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광주의 전통문화에

흥뻑 빠졌다. 전통한옥과 다도, 한복, 전통놀이, 국악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전통문화관에는 매일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월봉서원과 무등서원, 원효사 등에도 체험을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1일 열린 광주칠석고싸움놀이에는 많은 수의 외국인이 참가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광주 '일맥상통', 매일 저녁 남부대·선수촌·염주체육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등에서 열린 다양한 공연 등 대회 기간 광주 전역은 축제의 현장이었다.

◇ 국제 스포츠 도시 발돋움
마스터즈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바로 마스터즈 수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100여개 팀에서 1000여 명

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를 계기로 동호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경기경기가 외에 아티스틱수영, 오픈워터수영, 다이빙, 수구 등의 팀들도 출전하면서 비기닝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건강한 운동으로 수영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마스터즈대회 개최를 통해 언제든 대규모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국제스포츠포 도시로 발돋움했다. 특히 수상, 숙박, 식음료 분야는 물론 조직위원회 종사자, 운영 요원, 자원봉사자 역량이 커지는 등 두터운 인적 자원 육성이란 효과를 거뒀다.

실제 대회 기간 1631명의 자원봉사자와 곳곳에서 활약한 운영 요원들은 사전 치밀한 교육과 준비로 빈틈없이 대회를 치러내 각국 수영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만 국내 참가자들은 이주동성으로 우리나라의 열악한 수영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주를 수영도시로 만들기 위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 수영 확대 등을 위한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엘리트 수영과 마스터즈 수영 구분 없이 수영 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가칭)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수영 동호인들을 위한 광주수영마스터즈대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중국·마카오

- 황금연휴 특별기**
10월 3일 단 1회 찬스!
하나팩 ATPF01_A
대만·지우펀·스펀 4일
115만원~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편안한 중화항공 #101타워 #4성급 호텔

하나팩 CCF01
상해 주가가 4일 5일
2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관광기 > 상해 > 톈안문 > 베이징

하나팩 CCF02
상해/장가계 4일 5일
1,0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한화제일항공 > 4성급 호텔

하나팩 CCF06.1
상해-황산 4일 5일
5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중국국제항공 > 4성급 호텔

하나팩 CCF05.W
상해/계림 4일 5일
1,06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중국국제항공 > 4성급 호텔

하나팩 CCF07
홍콩/마카오/상천 5일
891,000원~
화/일 2박 4일 / 목 3박 5일 *계림/계림 있음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5성급 호텔 > 삼천진주 > 4성급 호텔

하나팩 AMPF02.0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589,000원~
수 4-7박 4일, 토/일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30~ / 선택경비 있음
#말레이시아 > 4성급 호텔

동남아·대만

하나팩 AVPF1.E
다낭 호이안 후에 4일
499,000원~
매일운항 3박4일 *계림/계림 있음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관광기 > 휴양지 동시

하나팩 APPF01.A
세부 5일 일급리조트
494,000원~
주 4-6박 운항 *일기별날이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호캉스 > 온천사지

하나팩 AAFP01.X
방콕-파타야 5일 6일
490,000원~
수/목 3박5일, 토/일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요트투어 > 스카티카 컨소

하나팩 APPF10
상해-캄보디아 4일 5일
9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렴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한진항공사 > 4성급 호텔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여행 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세비용료, 관광비용개발기금, 운송/숙박/식요금, 여행비용료, 현지관광비용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증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여행비] 여행비지출은 여행기간 동안의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중호텔 이상 2인 1실/교편만 항공/버스/택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산/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국제항공료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서비스 대세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여행 단계를 국가 지정 현행!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철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